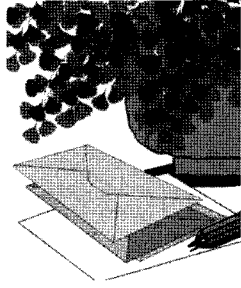


푸른 농촌 희망 찾기



# ‘참살이 · 먹거리 생산’ 올바른 인식 전환 필요

**하루** 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푸른 농촌의 꿈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에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은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작은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그늘 아래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식량증산정책은 농약 및 비료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농업생태계에 적잖은 영향을 주어왔다.

최근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 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주말농장이나 가까운 텃밭을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당연히 친환경, 유기농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가장 먼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이견 없이 연상하게 된다. 단순히 농약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50%를 넘는다는 국내의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

를 충분히 뒷받침 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다양한 종류의 심각한 식품 위해요소가 존재하지만 유독 농약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는 듯 하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는 결국 농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 부적합 농산물, 소비자가 외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농약은 농작물을 각종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보호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재배자의 노동력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 시킬 수 있는 현대 농업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일반대중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게 높은 반면, 먹거리를 생산하는 도구인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농자재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임을 인지할 수 있다.

농약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한 품목이 개발되어 사용되기까지는 방제 효과는 물론 다양한 포유류 및 환경생물에 대한 독성시험, 환경 잔류성과 안전

성 등의 시험연구결과가 농약의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농약으로 등록되어 일반 농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최소 5~10년 동안의 개발기간과 500~1,000억원의 개발비용, 30,000분의 1의 낮은 개발확률을 감수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다. 이와 같이 고도로 과학화된 농약은 국가기관에서 방제효과가 우수하고 안전한 농약만을 선별하여 국내에 등록,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약효가 떨어지거나 독성과 잔류성이 높아 위해성이 인정되는 농약은 생산을 금지하는 등 관리체계가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한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1,290여 품목 중 맹독성 농약은 단 한 품목도 없으며 불과 1.2%(16품목)의 고독성 농약도 목숨이 경각에 이르러 있다.

안전장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식용작물이 필요로 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모두라 할 수 있는 310여종을 상회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농관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국가기관과 농수산물공사 등에서는 생산 과정은 물론 수확한 농작물에 대해서도 엄격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농산물은 시중에 설자리가 없다. 그야말로 안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농산물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된 셈이다.

### 푸른 농촌, 풍요로운 미래 희망 갖게 해


물론, 농약은 인위적인 화학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작물에 약해를 일으키거나 먹거리를 오염시키기도 하며 환경에 부담을 주는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사용 기준을 잘 준수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농작물의 재배를 도와 안정적인 생산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소비자들의 참살이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생산량이나 비용 등의 문제에 비추어 본다면 공급량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농업 농촌을 살리고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며 먹거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높아지기 위해서는, 과학을 보는 소비자들의 균형 있는 시각과 함께, 선택성이 높고 저약량 고효율의 환경친화적인 농약개발을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며,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농업생태계 및 인간 주변의 생태환경 모두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푸른 농촌에서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분야 종사자 모두가 합심해야만 가능한 중요한 과제다. 



이상계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